

# 〈청해별곡(靑海別曲)〉 연구

이은주\*

- I. 서론
- II. <청해별곡>의 작자와 창작시기 문제
- III. <청해별곡> 구성의 특징
- IV. <청해별곡> 내용상 특징
- V. 결론

## 〈국문초록〉

이 논문은 연세대 소장본 『청북근조(靑北近調)』에 수록된 <홍라관장청해별곡(紅羅館藏靑海別曲)>(이하 <청해별곡(靑海別曲)>으로 약칭)의 특징을 구성과 내용을 중심으로 논의한 것이다. <청해별곡>은 1891년에 함경도 북청을 다녀온 이병욱이 쓴 117수의 지방죽지사이다. 서문에서 언급된 신광수의 <관서악부>의 영향을 받은 작품으로, 특히 지역, 지방관, 교방이라는 세 요소를 주축으로 하고 있다.

먼저 이 작품을 쓴 이병욱의 인적사항과 창작시점인 1891년에 대해 밝힌 것과 의문이 남는 점을 정리하였고,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관서악부>와 차별되는 지점을 열거식 구성과 독립적인 부분의 존재, 이렇게 두 가지로 파악했다.

<청해별곡>은 기본적으로는 북청의 이상적인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북청부민들이 직면하고 있던 여러 문제점들도 해결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이병욱이 북청에 갔을 때 직면했던 현실적인 문

---

\* 서울대학교 기초교육원 강의부교수

제는 1888년에서 1890년 사이에 일어난 북청민란과 수해였다. 또 그동안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다. <청해별곡>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로 지방관을 의미 있게 설정하였고, 교방의 기생들에 비중을 둠으로써 시에 낭만과 풍요의 이미지를 덧 붙였다.

핵심어: 청해별곡(靑海別曲), 이병욱(李炳勛), 함경도 북청, 지방축지사, 19세기, 유풍(儒風), 상업 도시.

## 1. 서론

연세대학교 소장되어 있는 『청북근조(靑北近調)』는 신광수(申光洙)의 <관서악부(關西樂府)>와 이병욱(李炳勛)의 <홍라관장청해별곡(紅羅館藏靑海別曲)>(이하 <청해별곡(靑海別曲)>으로 약칭)과 <광한루악부(廣寒樓樂府)>가 수록된 필사본이다. 이 세 편의 작품은 지방축지사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서 <관서악부>와 <광한루악부>가 수록된 필사본은 발견하기가 어렵지 않은 반면, <청해별곡>은 이 책에만 수록되어 있는 국내 유일본이다. <청해별곡>은 함경도 북청을 소재로 한 총 117수의 지방축지사로, 신광수의 <관서악부>의 여러 요소를 계승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19세기 후반 북청의 지역적 형상화를 보여주는 보기 드문 작품이라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지만, 부분적으로 작품 소개가 한 차례 이루어졌을 뿐<sup>1)</sup> 본격적으로 논의되지 못했기 때문에 이 작품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청해별곡>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이유는 작자로 명시된 이병욱(李炳勛)의 인적사항을 알 수 있는 자료가 거의 없다는 점부터 시작해서 대체로 북청이 잘 알려지지 않은 생소한 지역이기 때문일 것이다. 더욱이 이 책에는 정합적이지 못하거나 신뢰할 수 없는 서술도 있

1) 이은주, 『신광수 <관서악부>의 대중성과 계승양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어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 여전히 19세기 후반 20세기 초반 인물에 대한 인적사항이나 자료 정보가 충분히 축적되지 못한 상황이지만 본고에서는 자료적 한계를 무릅쓰고 <청해별곡>의 성격과 의의에 대해 논의해보고자 한다.

## II. <청해별곡>의 작자와 창작시기 문제

<청해별곡>에 대해서는 연세대 소장본의 해제에서 처음으로 어느 정도 소개가 이루어졌다. 이 해제에서는 『청북근조』에서 유의할 만한 부분에 대해서도 언급한 바 있는데, 이 책의 편자를 이병욱으로 추정하면서 “신광수의 『관서악부』를 본따서 『청해별곡』을 짓고, 거기에 『광한루악부』를 보태어 이 책을 엮은 것”이라고 서술한 것이 단적인 예이다.<sup>2)</sup> 곧 이 해제에서는 비록 『청북근조』에서 <관서악부>는 신광수를 작자로 적시하고 <청해별곡>은 “荊川 李炳勛 少游 著”로, <광한루악부>는 “延城李炳勳友蓮著”로 표기하여 이병욱이 <청해별곡>과 <광한루악부>를 둘 다 쓴 것으로 서술하고 있으나, 이를 그대로 믿을 수 없고 이병욱은 <청해별곡>만 창작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 책에 수록된 <광한루악부>는 1852년에 윤달선(尹達善)의 서문이 있는 <광한루악부백팔첩(廣寒樓樂府百八疊)>과 동일한 작품이다. 따라서 이 대목에서 <광한루악부>를 수록하면서 자신이 저자라고 제시한 이유와 ‘이병욱’이라는 동일인에 대해 “형천(荊川) 이병욱(李炳勳) 소유(少游)”와 “연성이병욱우련(延城李炳勳友蓮)”로 달리 표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하는 의문이 자연스럽게 제기된다. “연성이병욱우련(延城李炳勳友蓮)”의 경우를 보면 ‘연성(延城)’은 본관, ‘우련(友蓮)’은 호(號)로 보이며, 연안이씨 족보에서 일치하는 이병욱을 찾을 수 있다.<sup>3)</sup> 다만 족보에 나온 이병욱(1854~1921)

2)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 VI, 평민사, 2006. 이 자료의 해제자는 윤호진으로, 자료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설명하였다.

3) “字星汝, 號友蓮, 哲宗五年甲寅(1854)五月八日生. 徽慶園參奉. 一九二一年辛酉十二月六日卒. 墓後谷漆木洞(웃나무골)乙坐.”(李哲寧 편, 『延安李氏詹事公派大譜』, 龍仁郡: 延安李氏 詹事公派大譜刊行委員會, 1985)

의 생몰년을 고려할 때 족보의 이병옥이 <청해별곡>의 저자라면 <청해별곡>을 쓴 시점인 1891년에 38세이기 때문에 시기적으로는 자연스럽다고 추측할 수 있을 뿐이다. 그 외에도 ‘이병옥’으로 검색되는 단편적인 자료가 있다. 알려져 있는 자료로는 『창선감의록(彰善感義錄)』의 서문을 쓴 인물이며<sup>4)</sup>, 『간찰(簡札)』(계명대 소장본)의 편자이자<sup>5)</sup> ‘우련이병옥(友蓮李炳勛)’에게 지어 주거나 함께 수청한 시<sup>6)</sup>가 남아있다. 그럼에도 <광한루악부> 아래에 저자로 표기된 “연성이병옥우련(延城李炳勛友蓮)”이 <청해별곡> 아래에 표기된 “형천(荊川) 이병옥(李炳勛) 소유(少游)”와 동일인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저자의 이름만 명기되었을 뿐 구체적인 인적 사항을 확인하기 어려운 것과는 달리 <청해별곡>의 창작 시기는 비교적 확실한 편이다. 『청해별곡서』에서는 “신묘입춘후오일제(辛卯立春後五日題)”를 명시하고 있고 인물 정보와 작품에 나온 여러 정보를 종합하면 ‘신묘(辛卯)’는 1891년으로 정리할 수 있다. 이 시는 시구에 대한 보충 설명도 부기되어 있는데 여기에 따르면 완당(阮堂) 김정희(金正喜)가 임자년(壬子年, 1852)에 북청(北靑)에 유배되었다는 사실이 적시되어 있고[제17수] 1888년[고종 25]에 일어난 북청민란을 언급하고 있으며[제75수]<sup>7)</sup> 무엇보다도 1895년(고종 32)에 북청을 군으로 고쳤기 때문에 이 시에서 ‘북청도호부’를 특기하고 있다면 창작 시점은 1895년 전까지로 좁혀질 수 있다. 그 외에도 1891년 전의 구체적인 사건들이 제시되었다. 이규원(李奎遠, 1833~1901)이 북청 절도사에 제수되고(1888년, 제76수) 체직되었으며(1890년, 제90수) 김유성(金裕成)이 북청부사에 제수되었고(1889년, 제92수) 1890년에 관북지방에 발생한 큰 홍수 때문에 김유성이 위유사로 파견되었으며(1890년, 제97수), 한장석(韓章錫)이 함경감사에 제수

4) “歲甲辰(1904)蠟月下浣延城李炳勛序”(『彰善感義錄序』, 『彰善感義錄』(국립중앙도서관 소장))

5) 『簡札』에는 “乙未中秋友蓮李炳勛志拙書”라고 쓰여져 있는데, 19세기 후반에 활동했던 인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을미년’은 1895년을 가리키게 된다.

6) “數朔窮廬教不倦，而朝而暮陪同居，殷勤賜我無窮意，警以箴銘勸以書。塢翁遺馥久潛隱，留待如今吾丈人，撰綴嘉言題隱道，礪山楸櫨倍生春。惻悵清溪溪上路，一盃忽別淚盈衿，此去汶陽三百里，瓣香寄贈不忘心。”(朴世煥(1883~1966, 자 性夫, 호 梨山), <奉驢友蓮李丈炳勳行轅下三絕>, 『梨山文集』 卷1); 尹鍾均(1861~1941), <藍田旅館同李友蓮炳勳李白軒容民金可石炳勳唱酬>, 『己亥稿(1899)』, 『西堂詩集』.

7) “黃鼠卽戊子歲也。戊子秋民擾薄驚。”(<청해별곡> 제75수 세주)

되었고(1890년, 제101수) 이승재(李承載)가 북청부사에 제수되었다는(1890년, 제103수) 내용이 언급되어 있어 서문의 ‘신묘년’을 1891년으로 보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다.

그러나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애초에 『광한루악부』의 저자로 이병욱을 명기한 만큼 이 책 서술의 신뢰도는 높지 않다. 또 각 시구에 부기된 보충 설명에 1891년 이후의 정보가 담겨있다는 점도 해명해야 한다. 예컨대 제51수에 부기된 “今爲德源太守李承載所蓄” 구절과 제95수에 이준(李儁, 1859~1907, 호 靑霞. 본관 전주, 북청 출신)을 언급한 대목을 그 예로 들 수 있다. 『승정원일기』에 따르면 이승재가 덕원부사에 제수되는 시점은 1892년이기 때문이다.<sup>8)</sup> 또 제95수에서 이준에 대해 설명하는 대목에는 1905년을 언급하고 있다.

김도호(金都護, 김유성(金裕成)-인용자)는 이준(李儁)과 함께 향로봉 아래에 경학원을 설립하여 선비를 양성하는 곳으로 삼았다. ○ 이준은 북청의 훌륭한 선비이다. 호는 청하(靑霞)이다. 나와는 막역한 사이인데, 서울에서 30년간 있으면서 어지러운 시국을 상심하여 때때로 술을 마신 뒤에 큰 소리로 통곡하였다. 을사년(1905) 헤이그만국평화회의에서는 중론이 외면하는 것에 격분하여 마침내 통곡하며 배를 잘라 창자를 꺼내어 세계 사람들 앞에서 피를 흘리면서 죽었다. 아아, 장렬하구나.<sup>9)</sup>

일단 위에 인용한 구절에서도 착오가 있다. 이준이 특사로 파견된 제2차 헤이그 평화회의가 열린 해는 1907년이기 때문이다. 원문에서 “나와 막역한 사이”라고 할 때 ‘나’를 저자 이병욱 이외의 인물이라고 보기도 부자연스럽다. 시 원문과 보충설명을 부기한 사람이 다르다는 확실한 근거가 나오지 않는 한 <청해별곡>의 저자가 보충설명을 부기했을 가능성이 더 크다. 서문을 쓴 시기와 ‘신묘년’ 이후의 정보가 담긴 제주 사이의 불일치는 <청해별곡>을 짓고 나서 1907년 이후에 저자 자신이 주석 다는 작업을 했

8) “傳于沈九澤曰, 德源府使之代, 北靑府使李承載除授.”(『承政院日記』 1892年 1月 18日)

9) “金都護與李儁設經學院于香爐峯下, 以爲養士之所. ○李儁北靑高士也. 號靑霞. 與余爲莫逆之交. 遊洛三十年, 傷時事之攙搶, 往往酒後大哭之. 乙巳海牙萬國談判會, 憤衆論之不叶, 遂痛哭副腹擗腸, 揮血於萬國之人而死. 嗚呼, 烈哉.”(<청해별곡> 제95수)

다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다.<sup>10)</sup> 그 때가 『청북근조』를 엮을 때와 같은 시점 인지는 알 수 없지만 시구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을 덧붙인 것은 <관서악부>가 창작 이후 필사되는 과정에서 시 구절에 세주가 추가되어 유통되던 정황을 어느 정도 의식한 결과로 보인다.

### III. <청해별곡> 구성의 특징

#### 1. 지방 죽지사 전통의 계승

『청해별곡서(靑海別曲敍)』에는 <청해별곡>이 전범(典範)으로 삼은 작품이 무엇이며, 어떤 점에 주안점을 두었는지가 비교적 구체적으로 설명되어 있다. 서문은 “근세의 신석북(申石北)의 <관서절조(關西絶調)>와 이수산(李水山)의 <성도가영(成都佳詠)>은 모두 옛 곡조와 흡사하게 써서 사람들의 마음과 시선을 끌어 한 시대의 지저분한 기운을 불식시켜 지금까지도 기생들 사이에서 회자되고 있다.”<sup>11)</sup>로 시작하는데, 이 구절에서 신석북(申石北)의 <관서절조(關西絶調)>는 신광수의 <관서악부>를 지칭하는 것이 명확한 반면 이수산(李水山)의 <성도가영(成都佳詠)>은 정확하게 무슨 작품을 지칭하는 지는 불확실한 상태이다.<sup>12)</sup> 다만 우리나라에서 ‘성도(成都)’가 평안남도 성천(成川)을 가리키므로 여기에서는 <청해별곡>이 지향하는 주된 목표 중 하나가 지방의 형상화에 있다는 점을 읽어낼 수 있다.

서문에서는 뒤이어 <청해별곡>을 짓게 된 직접적인 계기를 서술하고 있

10) 이은주의 논문에서는 이준의 경우에만 착목하여 “○” 표시가 있는 구절만 나중에 덧붙인 것이라고 추정했지만, 아예 시구에 대해 보충 설명하는 부분 전체가 나중에 덧붙여졌을 수도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 필사본이 나중에 전사된 것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제목인 『靑海別曲』에서 암시되듯이 예전에 지은 <청해별곡>이 홍라관에 소장되어 있는 것을 다시 정리하여 주를 다는 작업이 선행되었고 이것을 저본으로 『청북근조』를 엮은 것으로 보인다.

11) “近世申石北之<關西絶調>·李水山之<成都佳詠>, 皆酷寫古調劇心鉤目, 拂拭一代塵穢, 至今膾炙於脂粉叢中矣.”(李炳勛, <靑海別曲敍>, 『靑北近調』)

12) 이수산(李水山)의 성도가영(成都佳詠)은 평안남도 성천에 있는 강선루(降仙樓)를 중심으로 이 지역에 대해 쓴 가사인 이후연(李厚淵, 1789~?, 호 晚翁, 자 聖徵, 1838년 성천부사로 부임한 이인고(李寅臯)의 숙행(叔行)의 <선루별곡>으로 추측할 수도 있을 듯하다. 그러나 그러기 위해서는 ‘이수산’이 이후연과 동일인이라는 근거가 필요하다.

다. 친구 구풍남(具豊南)이 북청에 2년간 있다가 돌아와서 북청이 산천과 누대가 아름답고 인물과 풍악이 변화하다고 이야기하는 것을 들었는데 그 해에 우연히 북쪽 지방에 갈 일이 있어서<sup>13)</sup> 북청을 두루 돌아보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지점에서 이병옥은 “한 읍의 형승과 고적[一邑形勝古蹟]”을 보았고 당시에 “선정을 베푸는 관의 성대한 명성[官聲績之蔚熾]”을 들었다는 점을 명기하고 있어 북청이라는 지방 전반을 형상화하되 그 지향점은 ‘선정이 베풀어지는 북청의 이상적인 형태’에 맞춰져 있다는 것을 짐작할 수 있다. 또 다른 지향점은 “만약 음악을 아는 사람에게 악기를 연주하며 가창하게 하면 틀림없이 노래를 부르거나 악기 연주하기에 자연스럽지 못하고 조화로운 음률도 아닐 것이다(若使解音人翻於肉竹, 則必舌硬手澁, 非宮非商矣)” 구절에서 발견할 수 있다. 이 구절은 자신이 지은 <청해별곡>이 악기 연주에 맞춰 가창되기를 바란다는 의미로 해석된다.<sup>14)</sup>

이 부분은 서두에서 언급한 “기녀들에게 회자되었다[膾炙於脂粉叢中]”과 대응되는 것으로, 일차적으로는 <관서악부> 서문에서 언급했던 “다시 <관서악부(關西樂府)>를 지어 이 지방의 관찰사에게 보내어 노래로 불리게 하려고 한다”<sup>15)</sup> 구절을 잇고 있다. 이렇게 지방 죽지하면서 동시에 교

13) 이병옥이 어떤 일로 북청에 가게 되었는지는 현재로서는 확인할 수 없다. 다만 서문에서 친구 구풍남(具豊南)이 북청에서 2년간 있다가 돌아왔다고 했는데, 이것이 단순한 개인적 차원의 여행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구풍남에 대한 관련 자료를 찾기가 어려워져 이때의 상황을 확인할 수는 없지만 2년이라는 시간으로 보면 관리로 파견된 것이 아닐까 추측할 수 있다. <청해별곡> 제52수의 세주에 “부 기생 은옥은 시를 좀 알고 구풍남이 좋아하던 사람이었다. 경인년(1890)에 구풍남이 고향으로 돌아갔다가 가을에 다시 은옥의 집에 찾아 갔다. 삼산은 보은현의 옛 이름이고 풍남이 살던 곳이다.[府妓銀玉稍解吟哦爲具豊南所所。庚寅具還鄉秋再到娘家。三山報恩縣舊號，豊南所居地]”라고 하였는데, 구풍남이 부의 기생과 왕래할 정도로 가까운 관계를 맺은 것도 역시 관료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 아닐까 생각된다.

14)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 VI에서 윤호진은 이 구절을 “만약 음률을 아는 사람이 고기와 대나무를 가리듯 하면 혀가 굳고 손이 떨려 서투게 지은 시로 궁(宮)도 아니고 상(商)도 아닐 것”이라고 번역하면서 주석에서 “사람이 살아가면서 두 가지(부귀와 고상함)를 모두 얻을 수는 없다”는 의미로, 시를 잘 아는 사람이 자신의 작품에 대해 평가한다면 좋게 평가하지 않을 것이라는 겉사로 이해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육죽(肉竹)’이 성악과 관악기를 뜻하는 단어이며 앞뒤 문맥과 관련지어 보면 “음악을 아는 사람에게 악기를 연주하며 가창하게 한다면 이 가사가 음률과 조화롭게 맞기가 어렵다”는 겉사로 보는 편이 더 자연스러울 것이다.

15) “欲更賦關西樂府, 以遺是邦之爲方伯地主者, 被之聲歌.”(申光洙, <關西樂府-并序>, 『石北集』卷10)

방에서 가장되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피력하는 것은 <관서악부>에서 이미 제시된 내용이었다. 다만 <관서악부>에서 특기한 ‘관서백사시행락사(關西伯四時行樂詞)’는 변화한 평양에서 평안감사가 최상의 풍류를 향유하는 양상으로 형상화되었지만 이후 지방 죽지사에서는 이를 그대로 가져오기는 어려웠고 다소간 변화를 가미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 중에서 가장 눈에 띄는 점은 구성의 변화였다. 그동안 평양을 소재로 한 시들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관서악부>가 지방 죽지사로 선명하게 각인되었던 이유는 장형 연작시임에도 불구하고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는 유기적인 구성을 갖추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관서악부>는 체제공에게 주는 일종의 헌시(獻詩)였으므로 시의 구성에서 구심점은 평양과 평안감사 체제공 두 가지였다. 때문에 <관서악부> 108수는 평안감사 체제공이 도입하면서 평양의 이모저모를 펼쳐놓다가 체제공이 이입하여 평양을 떠나는 것으로 끝맺는 구성을 보이게 되었다. 그러나 <관서악부>의 여러 요소를 차용한 후대의 지방죽지사 작가들은 신광수의 체제공의 관계처럼 특정한 인물을 염두에 두고 시를 지은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역과 지방관, 교방의 기생이 <관서악부>처럼 하나의 스토리로 연결되기는 어려웠다. <청해별곡>의 경우에도 특정인물을 중심으로 한 서사성은 현저하게 약화되고 이 세 요소를 열거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이렇게 달라진 구성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점은 각각의 요소를 자연스럽게 이어줄 연결고리를 어떻게 만들어내는가 하는 문제였다.

시의 전반부에서 제30수까지는 북청의 산천과 인물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지역적 특징을 드러냈다. 제31수부터는 북청도호부에 절도영(節度營)이 있다는 사실을 환기시키면서 자연스럽게 절도사의 존재를 부각시키는데, 이 시에서 절도사를 강조하는 방식은 <관서악부>에서 보여주었던 위용 있는 도입 과정을 열거하는 방식을 답습하고 있다.<sup>16)</sup> 절도사의 옷차림, 절도사가 부임하기 전에 각 지역의 수령들이 예장을 보내어 절도사가 수결하는 장면, 절도사가 군영에 도착한 뒤에 문묘에 참배하고 업무를 시작하고 절도사의 명령에 따라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관원들의 모습을 제시하였다.[제 31수~제39수] 그 다음에 절도영 주변의 모습을 스케치한 뒤에 이 시는 본

16) 이은주, 앞의 논문.

격적으로 부의 기생들을 열거하는 장면으로 나아간다. 그 다음 제50수에서 제74수까지는 작품 전체에서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교방의 모습이 나타나 있다. 교방 기생들의 면면과 풍류의 모습이 제시된다.

<청해별곡>에서는 크게 두 부분에서 자연스러운 연결이 문제가 되었다. 그 중 하나가 절도사의 도입 과정의 위용과 교방의 모습을 연결시키는 부분이었고 제48수와 제49수는 이후 나올 교방의 묘사가 어떤 맥락에서 제시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여도사 중 허난설현을  
 알아주던 사람으로 주지번이 있었네.  
 삼백 편 노래 중에서 <나말사>와 <보허사>가  
 드물게 부용원으로 흩어져 들어갔네.  
 女道士中許景樊 賞音曾有朱之蕃  
 羅韞步虛三百拍 零零散入芙蓉園 [제48수]

늦봄의 날씨는 한창 좋은데  
 고운 분 바른 여인들은 침울하네.  
 측문 서쪽 장미꽃 덩굴에서  
 문득 전생에 못다 한 내 사랑을 보았네.  
 曄春天氣可人憐 細澤粉香黯黯然  
 角門西畔薔薇架 驀見風流五百年 [제49수]

제48수와 제49수는 각각 뒤에 나올 교방의 형상화가 기생들의 연향과 풍류에 맞춰져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시재(詩才)를 갖춘 허난설현과 그 재능을 알아준 명나라 사신 주지번의 관계는 교방에 있는 기생들의 의미를 명시적으로 보여준 것이었다.<sup>17)</sup> 이러한 맥락에서 춤을 잘 추는 죽희(竹姬)[제50수], 노래를 잘 하는 소춘(小春)[제51수], 시를 아는 은옥(銀玉)[제52수], 그림을 잘 그리는 진주(眞珠)와 산산(珊珊)[제53수], 노래를 잘하는 동정월(洞庭月)과 춤을 잘 추는 청해선(靑海仙)[제54수] 등이 묘사된다. 기예가 있

17) “閨秀許景樊，號蘭雪軒，自稱女道士，文章雋逸，與曹大家蘇小妹并美，爲東國女史之宗。明使朱蘭嶼(之蕃)選其集，序其卷，多入於明律。其著有羅韞步虛二詞，尤膾炙於世。”(<청해별곡> 제48수 세주)

다는 점 외에 교방 기생은 제49수에서 나온 것처럼 애정의 대상으로 등장했다.<sup>18)</sup> 소춘이 덕원태수 이승재가 좋아한 기생이었다거나[제51수] 은옥이 구룡남이 좋아했던 기생[제52수]이라는 언급 이외에도 기생과의 애정을 명시하는 표현들이 상당히 등장하고 있다.

특정 개인의 비중은 현저하게 약화되었음에도 이렇게 지방 죽지사에서 지방관의 도임이 계속 언급되는 이유는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하나는 안정되고 평화로운 지방을 담보하는 전제조건이 지방관의 선정(善政)이기 때문이다. <청해별곡>에서는 <관서악부>의 평안감사에 대응될 만한 지방관으로 절도사를 내세우면서 도임의 성대한 의식과 상황을 보여주었다. 또 다른 이유는 <관서악부> 이후에 지방죽지사의 낭만성을 기생과의 로맨스와 동일시하는 경향이 강화되었다는 것이다. 지방관은 ‘관물(官物)’로 인식된 기생과의 풍류담이 정당화되는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맥락에서 절도사가 부임하는 절도영의 풍광에서 북청부의 기생들이 등장하는 대목을 연결하는 매개적인 부분이 필요했다.

예컨대 교방의 낭만과 지방관의 치적을 어떻게 연결시키는가도 문제였다. 곧 노골적으로 ‘무산일단운(巫山一段雲)’을 언급한 제74수까지 기생들과의 애정을 다룬 장면들이 계속 이어지지만, 지방 죽지사라는 측면에서 보면 낭만성이 작품 전체를 잠식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이 대목에서 <청해별곡>은 ‘홍랑창(紅娘唱)’, ‘단랑창(檀郎唱)’, ‘농부창(農夫唱)’처럼 인물들의 목소리를 빌려오는 것으로 이 문제를 효과적으로 해결하였다.

나비는 예쁜 꽃을 따라다니고  
기러기는 물을 따라다니니  
여섯 글자 노래 중에 ‘부드러운 살결과 따뜻한 체취’  
유생이 이제 천태산의 사계에 들어와서  
선녀를 만나 운우의 정을 맺었네.  
蝶隨花艷雁隨水      六字歌中軟玉溫  
劉生今到天召界      攬却巫山一段雲      [제74수]<sup>19)</sup>

18) “暮春天氣正亦駘蕩，多少紅娘情當冶游行春之時也。金人瑞元稹西廂記箋曰，驀然見五百年風流冤業。”(<청해별곡> 제49수 세주)

19) “蝶隨花雁隨水，華東巷謠也。西廂記詞曰，軟玉溫香抱滿襄云。劉生卽劉晨，指天台山遇仙女事也。言檀郎聞紅娘之謠，遂成雲雨之夢。”(<청해별곡> 제74수 세주)

황계타령이 끝난 뒤에 취기가 오르니  
 근심과 즐거움은 원래 오고 가는 법.  
 태평성세도 오래되자 민풍이 저하되어  
 무자년 작은 소동에 깜짝 놀랐네.  
 金雞唱罷攪酣魂 憂樂元來各一番  
 昇平日久民風降 黃鼠鼯驚小劫喧 [제75수]<sup>20)</sup>

제70수 아래에는 ‘홍랑창(紅娘唱)’이 부기되어 있는데, 교방의 풍경이 제시된 다음에 애정담을 ‘홍낭창’으로 극대화시켰다. 곧 ‘홍낭창’은 기생의 목소리로 교방의 낭만성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홍랑(紅娘)’과 대응되어 다음에 ‘단랑(檀郎)’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도 자연스러워 보이고 그런 점에서 제75수 아래에 ‘단랑창(檀郎唱)’을 표시하였는데 인물이 바뀌었으므로 내용도 전환되었다. 제75수는 교방에서의 연회가 언제나 계속될 수 없다는 사실로 즐거움이 다하면 근심이 온다는 세상사의 이치를 환기시키고, 뒤이어 앞에서 제시했듯이 잘 다스려지고 평화롭던 북청에서 일어난 소란을 언급하고 이를 다스리기 위해 부임한 지방관들의 면면을 제시한다.

요컨대 <청해별곡>은 이전에 지어진 <관서악부>의 지방의 형상화, 지방관의 도입, 교방의 기생과의 풍류라는 세 요소를 그대로 잇고 있다. 그러나 <관서악부>와는 창작상황이 달랐기 때문에 전체 구성이 체제공처럼 특정 인물의 동선과 결합할 필요가 없었다. 때문에 비슷한 내용으로 묶어서 분류하였고, 시 전체의 구성을 위해 각 내용을 잇는 연결고리를 설정하고 있다.

## 2. 연행(演行)을 위한 부분의 독립성

세주에 몇몇 구절이 ‘홍랑창(紅娘唱)’, ‘단랑창(檀郎唱)’으로 적시된 것은 왕실보의 『서상기』를 반영한 결과이다. 이것은 <관서악부>에서 활용한 것으로 <청해별곡>에서도 애정이라는 낭만적 요소를 가미하기 위한 장치로 사용되었다. 서문에서 가창되기를 바란다는 희망은 단순히 <관서악부> 서문의 내용을 가져온 것을 넘어 작품에서 적극적으로 구현되었다. 이러한

20) “黃鼠卽戊子歲也。戊子秋民擾薄驚。”(<청해별곡> 제75수 세주)

장형의 연작시는 내용상 교방에서 연행될 수는 있겠지만 다른 한편 분명한 한계를 가지고 있다. 예컨대 평양의 기생들은 신광수의 <등악양루탄관산용마(登岳陽樓歎關山戎馬)>를 즐겨 불렀는데,<sup>21)</sup> 이 점은 교방의 기생들의 기예가 지방색을 가지고 있다는 점을<sup>22)</sup> 고려하면 다소 의외의 선택으로 보일 것이다. <등악양루탄관산용마>와 비교할 때 <관서악부>가 내용상 더 평양 교방에 더 잘 어울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108수를 한 자리에서 연행하기 어렵기 때문에 만약 이러한 장형의 죽지사를 부르게 되면 결국 특정 대목을 선별할 수밖에 없다. 108수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관서악부>와는 달리 독립적이고 완결된 ‘부분’이 존재하는 <청해별곡>은 전체적으로 잘 짜인 구성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달리 보면 이런 독립적인 대목들은 상대적으로 연행할 때 적합하다고 볼 수 있다. 제70수 아래에 언급된 ‘홍낭창’은 내용상 제74수까지 이어지며, 제75수 아래 ‘단랑창’은 제81수까지, 제82수 아래 ‘농부창’은 제90수까지 이어진다.

어진 정치를 사궁(四窮)의 구제에서 시작하니  
그늘진 곳마다 봄바람이 일렁인다.  
많은 돈을 월급에 부과하여  
한 해 대부분을 백성들과 함께 했네.  
仁政先於濟四窮      陰厓處處動春風  
萬貫青蚨課月俸      周年太半與民同      [제88수]

남자들은 역을 감해 봄 농사가 편해졌고  
여자들은 공물을 면제해 밤새워 베 짜기를 안 해도 되네.  
일반 여자와 아이들도 치적을 찬양하니  
청렴한 모습에 늘 이곳에 남아주기를 바라네.  
丁男減役春畊穩      寒女蠲供夜織閒  
尋常婦孺猶嘆頌      清節願言百歲攀      [제89수]

21) 이능화 『조선해어화사』, 신한서림, 1968, 198면.

22) 위의 책.

세상일은 느닷없이 내 마음과는 달라서  
 올해 갑자기 절도사님이 돌아가게 되었네.  
 24방의 백성들이 어머니를 잃은 듯이  
 말 앞으로 달려가 다투어 흐느낀다.  
 世事居然與我違 今年忽見樞爺歸  
 廿四坊民如失母 馬前奔走競歔歔 [제90수]

단랑과 농부는 북청절도사 이규원의 치적을 증언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다. ‘단랑창’에서 북청의 소요를 안정시킨 절도사의 치적을 강조했다면 ‘농부창’에서는 농부의 시점에서 절도사가 얼마나 어버이같이 든든한 존재였는지를 보여주었다.

같은 맥락에서 제43수에서 제46수에 절도영 부근의 누정을 제시하면서 이를 사계절 풍경으로 묘사한 점이 눈에 띈다. 이것은 117수 전체를 아우르는 전개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없지만 최소한 이 4수로 보면 사계절 풍경을 요약적으로 보여주기 때문에 독립적으로 편성해서 부를 수 있다.

모란은 원래 ‘장원홍’이라 했으니  
 송 흠종 때 우리나라로 가져와서 심었네.  
 낙양에서 당시에 번화했을 땐  
 ‘대장군’ 나무가 몇 그루나 되었다지.  
 牧丹元是壯元紅 淵聖昇來落海東  
 洛陽當日繁華族 大樹將軍剩數叢 [제43수]<sup>23)</sup>  
 세주) 명엽정 모란 봄 경치 銘葉亭牧丹春景

침과당 세류는 가다가다 푸르고  
 뒤엀킨 여러 가지가 물속에 비친다.  
 지금까지 여전히 소만의 허리가 남아있어  
 새벽 달과 바람에 춤추는 자태 요염하네.  
 戈堂細柳碧鬢鬚 萬縷縈虵影蘸潭  
 至今猶有鬢腰在 殘月曉風舞態慙 [제44수]<sup>24)</sup>

23) “淵聖卽宋欽宗。入胡時昇牧丹而來落于北靑，至今猶存於中紅亭下。花譜牧丹一名壯元紅樹。高十丈曰大將軍樹，高五丈曰小將軍樹。”(<청해별곡> 제43수 세주)

세주) 침과당 세버들 여름 경치 枕戈堂細柳夏景

버드나무 있는 누대는 하루 종일 어두운데  
 생각나는 것은 연못 안의 완재정.  
 황혼에 만나자는 미인과의 약속을 저버릴 수 없어  
 달 실은 배 타고 순식간에 물가로 가네.  
 楊柳樓臺盡日暗 所襄宛在水中亭  
 美人不負黃昏約 載月孤舟驚下汀 [제45수]<sup>25)</sup>  
 세주) 완재정 밝은 달 가을 경치 宛在亭明月秋景

눈은 뒤에 가산이 진면목을 드러내니  
 천 개 불상이 송암에 다 모였네.  
 공중의 수많은 갑옷처럼 빛나니  
 마치 불법을 수호하는 여러 절 같구나.  
 雪後假山露真面 石頭千佛會松庵  
 閃閃空中百萬甲 依如護法衆伽藍 [제46수]  
 세주) 석가산 흰 눈 겨울 경치 石假山白雪冬景

이 네 수는 절도영 주변 누정의 사계(四季)를 묘사한 것이다. 전체를 아우르는 하나의 서사가 없는 <청해별곡>에서 드물게 시간성을 보여주는 대목으로, <관서악부>에서 시간과 공간을 아우르는 총체적 형상화를 부분적으로 가져왔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이 네 수는 북청이라는 지역을 대표하는 풍경이라고 볼 수는 없다. 오히려 상당히 낭만적으로 그려낸 풍경에 가깝다. 이 점은 교방에서 노래로 부를 때 어울리는 내용이며, 동시에 사계절이 전체적으로 분포해 있었던 <관서악부>와는 달리 독립적으로 떼어내도 크게 문제가 없도록 설정된 장면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24) “節度營或榜以枕戈堂，堂前多種楊柳。香山詩曰，櫻桃樊素口，楊柳小蠻腰。樊素小蠻，樂天愛妾也。殘月曉風出柳耆卿楊柳詞。”(<청해별곡> 제44수 세주)  
 25) “節度營內有方塘，塘中有宛在亭。”(<청해별곡> 제45수 세주)

#### IV. <청해별곡> 내용상 특징

##### 1. 유풍(儒風) 있는 과거, 반영하는 현재

<청해별곡>은 <관서악부>의 여러 요소들을 가져왔지만 결정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지점은 당시 그 지역의 상황을 얼마나 시에 담아냈는가 하는 문제일 것이다. <관서악부>를 지은 신흥수는 이전에 평양에 갔던 적이 있기는 했지만 체제공이 평안감사로 갈 때 따라간 것도 아니었고 무엇보다도 <관서악부>에는 평안감사가 평양에서 누리는 풍류담이라는 희망사항이 개재되어 있었으므로 시에 형상화된 평양의 모습이 사실적이라도 하더라도 평양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시에 반영할 여지가 없었다. 이와는 달리 <청해별곡>은 직접 북청에 가서 둘러 본 뒤에 일종의 견문기처럼 장형 연작시를 지었기 때문에 19세기 북청의 상황이 어느 정도 담겨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병욱이 북청을 서술하는 방식이 실상과 완전히 어긋난 것은 아니지만 이상적으로 표현하거나 미화하는 경향이 강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이 점은 외부에서 함경도 지역에 간 사람들이 대체로 북관의 험준한 풍토와 고통 받는 북관민들의 삶을 구체적인 층위에서 그려낸 것과 다른 지점에 이병욱이 서 있다는 사실을 알려 준다. 예컨대 암행어사로 함경도를 갔던 구강(具康, 1759-1832)이 1813년에 쓴 가사 <북새곡>에는 험하고 높은 북관의 산을 넘는 것에 대한 공포와 북관민들의 구체적인 삶이 드러나 있다. “소와 돛과 기 돛 증심 사름과 셋겨 즈데, 못 설너라 못 살너라 늑진서는 못살너라”처럼 외부인의 눈에는 신기하게 비칠 함경도 특유의 주거 환경의 묘사도 들어가 있다.<sup>26)</sup> 함경도에 유배 온 문인들도 이 지역의 흑한과 환경, 북관민의 고통을 시에 담고 있다.<sup>27)</sup> 이렇게 상무적인 기풍이든 척박한 자연환경이든 열악한 거주조건이든 많은 사람들이 함경도에서 다른 지방과는 ‘다른’ 어떤 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한 것과는 달리<sup>28)</sup> 이병욱은 북

26) 최미정, 『<북새곡>에 나타난 북관의 풍경과 관직자의 감성』, 『한국학논집』 제53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원, 2013, 260~280면.

27) 김태영, 『해좌 정범조의 함경도 유배기 한시 일고찰』, 『동악어문학』 제54집, 동악어문학회, 2010, 331~338면.

28) 심경호, 『관서·관북 지역의 인문지리학적 의의와 문학』, 『한국고전연구』 제2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8~17면.

청에서 다른 지역과 구별되는 독특함이 아니라 일반적으로 좋은 지방의 요건이라고 생각되는 모습을 북청에서 찾았다. 그 일환으로 과거 북청의 모습에서 강조점을 儒風에 두고 있는 것이다.

<청해별곡>은 백두산과 태조 이성계가 함경도 영흥에서 태어나 조선을 세우고 수도를 한양으로 정했는데 삼각산이 백두산의 산맥이 이어져 있다는 언급으로 시작한다. 이렇게 북청의 위상을 설명한 뒤에 북청을 개관하면서[제3수~제6수] 이곳이 절도사가 있는 곳이며 대도회지(大都會地)임을 강조하고 북청의 유적과 북청에 왔거나 관련된 인물을 제시하였다.[제7수~제30수] 함경도를 설명할 때 백두산을 특기하는 것은 드문 일이 아니지만, 외부에서 온 유명 인사들로 북청의 인문적 성격을 설명하는 것은 다소 의외의 선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시에서 거론한 인물들 중에서 다소 길게 보충설명을 한 인물은 이항복(李恒福)과 김정희(金正喜), 호극기(胡克己)였다. 이항복이 북청에 유배 왔다가 죽자 이 지방의 여러 선배들이 사당을 세우고 제향하였고 ‘노덕서원(老德書院)’으로 사액받아서 강학의 공간으로 삼고 있다는 내용[제10수], 김정희가 북청에 유배되었을 때 속후촌(俗厚村)의 산수가 수려해서 자주 그곳에 가면서 ‘소금릉(小金陵)’이라고 했다는 일화와 함께 3편의 시를 덧붙였고[제17수], 명나라 한림학사 호극기(胡克己)가 사신으로 조선에 왔다가 명나라가 멸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귀국하지 않고 북청에 정착해서 살았다는[제28수] 내용을 수록하였다. 이 세 명은 모두 ‘상무지향(尙武之鄉)’의 이미지를 불식시키려는 의도에서 선택된 것으로 이해된다. 때문에 선행 연구에서 언급하였듯이 광해군의 폐정에 항의하는 상소문을 올렸다가 유배된 이항복을 위해 사당을 짓고 제향하는 북청의 사인들의 모습을 통해 문풍(文風)이 남아있다는 점을 강조한다거나 명나라에 대해 절의를 지킨 호극기가 정착하기로 결정할 정도로 특별한 곳이라거나 ‘소금릉(小金陵)’이라고 평한 김정희의 발언을 가져오면서 북청의 아름다운 산천을 특기하고 있는 것이다.<sup>29)</sup>

함경도를 ‘상무지향’으로 보는 일반의 인식을 반영하기보다 유풍이 있는 곳임을 강변하는 것처럼 북청의 현재 모습도 긍정적인 측면이 부각되었다.

29) 이은주, 앞의 논문.

<청해별곡>에서는 창작 시기 북청의 상업적 발달에 대해서도 언급하고 있는데 주로 명태의 산지이자 어물 유통의 중심지로 상업도시로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 초점을 두었다.

어민들은 빈 포구를 통해 살아가니  
 큰 배 작은 배, 낡은 배와 새 배가 섞여있네.  
 강남의 거상들이 끊임없이 와서  
 해마다 석숭(石崇) 같은 부자들이 늘어나는구나.  
 浦人契活倚空津      大艦小舠雜舊新  
 江南富賈來相續      每歲增生石季倫      [제112수]

조선후기 함경도 지역의 상업적 발달을 설명하기 위해 삼(蔘) 교역, 광산 개발, 어물 유통 등을 거론하지만, 함경도의 각 읍에 그 양상이 동일하게 나타났던 것은 아니었다. 북청의 경우 18세기 후반부터 명태 생산의 중심지였을 뿐만 아니라 근해에서 잡은 명태를 연안 해로를 이용하여 함흥, 원산 등지로 수송하여 판매하면서 상업도시로 성장해 갔다. 감수, 갑산으로 연결된 도로를 통해 특산물을 모으고 어염을 공급하며 경제적인 이익을 누렸고 고리대를 이용하기도 했다.<sup>30)</sup> <청해별곡>의 제110수와 제111수에서는 명태를 비롯하여 어물의 산지라는 점을 보여주었지만 제112수에서는 여러 상선이 집산하는 유통의 중심지였으며 신흥 부자들이 생겨나는 당시의 정황을 보여주고 있다.

1884년에 병마절도사 윤웅렬(尹雄烈)의 죄를 성토했던 함경도 유생의 상소문에서도 북청부민의 주된 생업을 확인할 수 있다. 이 상소문에서 열거한 윤웅렬의 죄상은 주로 명태와 돈을 빼앗거나 어상(魚商)들에게 명태값을 제대로 지불하지 않았으며 선박을 운행했다는 것이었다.<sup>31)</sup> 이렇게 북청이

30) 고승희, 『19세기 함경도 상업도회의 성장』, 『조선시대사학보』 제21집, 조선시대사학회, 2002, 137~170면.

31) “윤웅렬은 홍원(洪原)의 난잡한 무리인 홍길후(洪吉厚)와 악행을 함께 저질렀으니, 홍원 백성 최응용(崔膺鏞)·박정하(朴廷夏)·임치선(林致善) 세 사람에게 사실이 아닌 죄를 씌워 돈 1만 3천여 냥을 백징(白徵)하고, 권중호(權宗鎬)와 염여종(廉汝宗)에게는 초사전(初仕錢)이라 칭하면서 2만 6천 냥이나 되는 많은 돈을 백징하였으며, 북청 백성 이원필(李源弼)에게는 북어(北魚) 180태(駄)와 돈 4000여 냥을 거저 빼앗았는데, 한정 없는 욕심이 그러고도 차

상업적인 도시로 발전하고 어업을 통해 부자들이 생겨나지만, 이것이 북청 부민들에게 체감되는 풍요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거둬들인 지방관들의 수탈과 유민의 유입으로 인한 인구 증가, 재해 등의 불안 요소가 엄존해 있었기 때문이다.

북청의 상업적 발달의 흔적은 <청해별곡> 마지막 5수[제113수~제117수]에는 다시 ‘홍랑창(紅娘唱)’이 표시되어 있고, 풍류 공간인 교방의 모습과 그곳에서 부질없이 늙어가는 것에 한탄하는 내용으로 끝맺는 부분에서도 읽을 수 있다. <청해별곡>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교방 장면은 북청을 낭만적으로 형상화하는 일환이었겠으나 다른 한편으로 기생의 흥성을 의미하기도 한다. 관찬읍지에서 북청 교방의 규모는 다른 지역을 압도할 만큼 크다고 보고되지 않으나, 전국에서 교방이 가장 많아서 기생의 수가 3, 400명에 이른다고 한<sup>32)</sup> 이유원이나 여기에 동의한<sup>33)</sup> 이능화의 서술은 주의 깊게 읽을 필요가 있다. 조선시대 기생은 국역체제 속에서 역을 담당하는 공적인 존재였으므로, 특별한 이유가 알려지지 않은 채 북청에만 기생의 수를 많이 할당한다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시기 북청의 교방 또는 기생에 대해서 부가적으로 설명해 줄 자료가 발굴되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 많은 수의 기생이 북청에 있었다면 이들은 사적으로 영업활동을 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시기 북청의 상업적 발달을 짐작해 볼 수 있다.

---

지 않아서 더 정수하려고 지금까지도 가두어 두고 있습니다. 홍원·북청·이원·단천의 어상(魚商)들에게서는 북어를 사들이고는 반값만 주었으며, 백성들의 재물을 빼앗고 이익을 남기기 위하여 원산진(元山津)에 선박을 운행하기도 합니다.”(『承政院日記』 1884년 6월 6일) 번역문은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을 따랐다.

32) “팔도(八道) 가운데 교방이 많기로는 북청만 한 곳이 없는데, 노래와 춤에 모두 교사(敎師)가 있다. 그곳의 풍습이, 딸을 셋 낳으면 하나는 농사짓는 집에 시집보내고 하나는 교방에 집어넣고 하나는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팔아넘긴다. 그리하여 기녀(妓女)의 수효가 거의 3, 4백 명이나 되고 무당의 숫자도 그만큼 많다. 비록 서울의 좌우(左右) 교방일지라도 그만큼은 되지 않는다.”(李裕元, ‘북청의 교방’, 『春明逸史』, 『林下筆記』 卷27) 번역문은 한국고전번역원의 번역을 따랐다.

33) “往在高宗甲午(1894)에吾先君子 | 出宰北靑이라吾陪往觀之하니果如李說하야妓數甚多하니 蓋北靑에北兵營及本府라故로有兵營妓하며有本府妓하야名籍各別이러라.”(이능화 『조선해어화사』, 신한서림, 1968, 100면)

## 2. 구원자로서의 지방관

<관서악부>에서는 서문에서 직접적으로 채제공에게 바치는 헌시라고 분명하게 밝혔지만, 채제공으로 대변되는 이상적인 평안감사였을 뿐 이름을 언급하거나 실제 어떤 사건을 구체적으로 지칭한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청해별곡>에서는 북청에 온 4명의 지방관을 일일이 언급했고 당시 북청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도 부분적으로 알 수 있다. ‘단랑창’[제75수] 이후에 지방관의 치적을 부각시키면서 이러한 측면이 특히 선명하게 드러난다. 북청 절도사 이규원(李奎遠)[제76수, 제90수], 북청부사이자 이후에 위유사로 온 김유성(金裕成)[제92수, 제97수], 함경감사 한장석(韓章錫)[제101수], 북청부사 이승재(李承載)[제103수]는 실명이 언급된 채로 후반부에 등장하는데, 이들은 당면한 북청의 문제를 해결하여 원상태로 복귀시키는 모습으로 나타난다. 곧 <청해별곡>은 전반부에서 상무적 전통 대신에 문풍이나 절의를 강조했다면, 당시 여러 차례 발생하고 있었던 사회 불안을 이규원을 위시한 지방관들을 과건해서 해결해 낸 과거형으로 설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북청의 미화하려는 전반부의 어조가 후반부에도 이어져 있다고 볼 수 있다.

1890년경에 북청에 갔던 이병욱에게 피부에 와 닿는 최근의 사회 불안은 크게 두 가지였다. 하나는 제75수에서 “무자년 작은 소동에 깜짝 놀랐네(黃鼠翻驚小劫喧)”로 표현된 1888년의 북청 민란이었다. 『승정원일기』로 이 사건의 추이를 살펴보면 1888년 7월 17일에 북청부민들이 함경남도 병마절도사 이용익(李容翊)의 탐학에 대항하여 췌불을 올리고 그의 죄목을 13조로 들어 연명으로 장소(狀訴)하면서 봉기했다는 보고가 있었다. 조정에서는 이 보고를 접하고 나서 이용익을 파직하고 의금부에서 취조하도록 했고 북청 부사 이원중(李源中)도 파직했다. 따라서 9월에는 부사가 공석이 된 것을 걱정하고 있는데, 이 문제는 1888년 8월에 이규원을 병마절도사에 제수하고 9월에 이위(李暉)를 제수했다가 12월에 덕원부사로 바꾸고 12월에 김유성을 북청부사로 제수하는 것으로 일단락되었다.

온화한 임금의 말씀이 궁궐에서 내려오니  
이공의 어짊은 끼니를 잇을 정도로 독보적이네.

결국 여론이 덕망 있는 이에게 돌아가서  
 임금께 추대하니 은총을 독차지하였네.  
 天語溫溫降慶氎 飯時難忘李公賢  
 畢竟輿論歸宿德 殿前推轂寵榮專 [제76수]<sup>34)</sup>

정세당에 도입하자마자  
 효유하신 말씀으로 매우 편안해졌네.  
 형벌로 다스리지 않아도 모두 감화되어  
 궁벽한 어촌과 산촌이 각각 안정을 찾았네.  
 淨洗堂中到任初 一言曉諭極開舒  
 不須鞭扑咸趨化 海滋山隅各奠居 [제78수]<sup>35)</sup>

‘단랑’의 목소리를 빌어 이용익을 처벌하고 다시 파견된 이규원을 칭송하는 내용인데, 여기에서는 특히 덕망을 강조하고 있다. 19세기 들어와 북청에서는 두 차례 소요사태가 일어났는데, 이 점은 북청을 위시한 함경도 지방의 특수성과 관련이 깊다. 1808년의 민란은 북청의 아전 김치정(金致貞) 등이 무리를 지어 향청(鄉廳)에 들어가 좌수를 불로 지지고 부사 심후진(沈厚鎭)에게 모욕을 준 사건인데, 부세를 징수하고 관리하는 과정에서 농간을 부리던 아전들과 이를 시정한다는 명분으로 또 다른 이권을 챙기려던 수령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한 것이었다.<sup>36)</sup> 함경도 지방은 삼남지방에 비해 토착 양반 세력이 크지 못했으므로 중앙에서 파견된 수령들의 권세가 절대적이었다.<sup>37)</sup> 1888년에 북청부민들이 봉기한 것도 병마절도사 이용익이 마구잡이로 백성들을 재물을 빼앗았기 때문이다. 달리 말하면 지방에 파견된 중앙관리의 수탈에 취약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소탈하게도 돌아오는 행랑은 텅 비었네(蕭然歸橐貯淸虛)”[제91수]에서 보이듯 지방관의 청렴에 대한 갈망이 컸다고 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1890년의 홍수였다. 『승정원일기』에 “한순간에 산이 무

34) “李大將軍(奎遠)以德望特除北青節度使.”(<청해별곡> 제76수 세주)

35) “淨洗堂節度營軒號。李節度莅任初製一書，曉視民人言甚惻怛，旬朔之間民皆安堵如故。”(<청해별곡> 제78수 세주)

36) 고성훈 외, 『민란의 시대』, 가람기획, 2000.

37) 위의 책.

너지고 강이 터져 성난 물결이 지나간 곳에는 남아있는 것이 전혀 없었다”<sup>38)</sup>고 표현할 정도로 큰 재해였다. 『승정원일기』에는 뒤이어 마을이 떠 내려가고 사상자가 나오고 논밭이 물구덩이가 되어 수확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위유사를 보내 토지를 다시 개간하게 하고 3년간 부제를 면제해주며 내탕전 1만 냥을 하사하고 구제책을 세워 나누어주라고 명하였다는 서술이 나온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인물로 제시된 사람이 1889년에 북청부사로 부임했다가 1890년에 영흥부사를 제수받은 김유성이었다. 김유성은 이 때 위유사로 파견되었는데, <청해별곡>에서도 김유성은 두 차례 북청에 왔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1890년 겨울에 북청부사로 부임한 이승재의 치적도 수재를 당한 백성들을 위무한다는 것이었다.

이와 함께 북청부사 김유성과 이승재, 함경도 관찰사 한장석의 치적으로 거론된 것이 문풍의 흥기였다. 한장석은 예문관대제학을 역임했다는 사실이 강조되었지만<sup>39)</sup> 김유성과 이승재는 경학원의 설립을 주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긍정되었다.

면면이 이어지는 경학의 서원을 설립하니  
 유자의 전통을 만회하러 다투어 학문에 매진하네.  
 축군의 수문을 이제 다시 보게 되었으니  
 삼 속의 쭉대는 질서 있게 나날이 성장하리라.  
 經學源肇設院 挽回逢掖競升堂  
 蜀郡修文今復覩 麻蓬秩秩日相長 [제95수]<sup>40)</sup>

거음의 부모들이 앞뒤를 에워싸니  
 춘풍을 얻어 기쁜 기색이 넘친다.  
 훌륭한 글 한 편에 진심을 토로하였으니

38) 『承政院日記』 1890年 10月 16日 기사.

39) 한장석은 『북청노봉영각기(北靑老峯影閣記)』(『미산집(眉山集)』 권8)에서 함경도관찰사로 부임하여 유풍(儒風)을 흥기시킨 노봉(老峯) 민정중(閔鼎重)의 초상화가 원래 함흥의 운전서원(雲田書院)에 봉안되어 있었는데 조정에서 중복 설립된 서원을 철회하였을 때 운전서원이 폐원되어 초상화를 북청의 노덕서원(老德書院)의 벽장에 보관해 두었다는 전후의 사정을 서술한 다음 김유성이 경학원을 세우자 자신이 경학원 유생의 요청으로 민정중의 초상화를 경학원에 봉안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40) “金都護與李僞設經學院于香爐峯下，以爲養士之所.”(<청해별곡> 제95수 세주)

가뭄 끝에 단비가 바로 쏟아지는 것 같네.  
 車陰父老擁先後 拚得春風喜氣洋  
 珍重一書肝膽吐 旱餘甘霖正雩雩 [제105수]<sup>41)</sup>

앞서 북청의 대표적인 인물로 제시된 이항복과 김정희는 북청 출신이 아니라 북청에 유배된 사람들이었지만 문풍을 선도했다는 점에서 이 지역에서 높은 위상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sup>42)</sup> 이것은 다시 말하면 이병욱이 <청해별곡>에서 북청이 지향해야 할 모습이 어떤 것인지를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곧 이병욱이 1890년경에 북청에서 봤거나 보고 싶었던 것은 이즈음에 당면했던 소요사태나 자연재해라는 문제가 해결되어 예전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었고, 또 다른 모습은 상무적 기상의 변방지역이 아니라 유풍(儒風) 또는 문풍(文風)이 어느 정도 자리 잡은 문화적 도시였다. 때문에 경학원을 설립한 김유성은 북청의 시인들과 모임을 갖고 수창했다는 내용 [제96수]이 추가적으로 제시되었고, 강학공간인 정일재(精一齋)의 완공을 보지 못하고 떠난 김유성을 이어 정일재의 건립을 추진한 이승재는 동고(東阜) 이준경(李浚慶)의 후손이라는 사실[제109수]이 강조되었던 것이다.

그런 점에서 과거 급제를 준비하는 유생들을 위해 경학원<sup>43)</sup>을 설립한 것은 이 시기 북청에서는 일종의 상징적인 사건이었다. 유풍을 진작시키는 것은 소요사태나 자연재해 같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과 북청이 가지고 있었던 부정적인 이미지를 약화시키는 효과를 낳았다. 따라서 현실에서는 여전히 북청에서 사회 불안은 완전히 해소되지 않았고 변방이나 ‘상무지향’이라는 인식이 사라지지 않았지만, 최소한 <청해별곡>에서 형상화된 북청의 모습에는 열악하고 낙후된 이미지가 소거된 것이다.

41) “李都護赴任初爲製一書，撫慰災民，辭甚切至，民心喜悅。”(<청해별곡> 제105수 세주)  
 42) 강석화, 『영·정조대의 함경도 지역개발과 위상강화』, 『규장각』 제18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 61면. 이 논문에서는 지방 유생을 지지기반으로 삼으려고 했던 유배객의 노력과 학문적 성장을 피하려는 지역 유생들의 요구가 맞아 떨어지면서 각지에 서원과 사우가 세워지고 이들의 활동이 활발해졌다고 분석하였다.  
 43) 성균관을 개칭한 경학원과는 다르다. 1887년에 성균관에 경학원을 부속하였다가 일본에 병탄되면서 성균관이 경학원으로 개칭되었다.

## V. 결론

본고에서는 아직 제대로 학계에 소개되지 않은 이병욱의 <청해별곡>을 중심으로 대략적인 서지사항과 서문에서 밝힌 <관서악부>에서 어떤 점을 계승하고 어떤 점을 변용하였는지, 또 이 작품에서 읽어낼 수 있는 19세기 북청이 어떤 모습인지를 논의하였다.

논의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9세기말 20세기초 인물과 자료의 경우 축적된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름이 명시된다고 해도 구체적인 행적을 찾기가 어려웠다. 본고에서는 이 작품을 쓴 이병욱과 창작시점인 1891년에 대해 밝힌 것과 의문이 남는 점을 정리하였다. 서문에서 이병욱이 직접 언급한 것처럼 <청해별곡>은 신흥수가 쓴 <관서악부>의 영향 아래 창작된 것이며 교방에서 불릴 수 있는 지방 죽지사라는 공통점이 있으나 구성이라는 측면에서 <관서악부>와 차별되는 지점을 열거식 구성과 독립적인 부분의 존재, 이렇게 두 가지로 파악했다. 또 <청해별곡>은 기본적으로는 북청의 이상적인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고 있기 때문에, 당시 북청부민들이 직면하고 있던 여러 문제점들도 해결되었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다. 곧 이병욱이 북청에 갔을 때 실감했던 사건들은 최근 몇 년, 곧 1888년에서 1890년 사이에 일어난 북청민란과 수해라는 현실적인 문제였다. 이와 함께 그동안 문화적으로 낙후된 지역이라는 오명을 벗는 것도 중요한 문제였다. <청해별곡>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는 구원자로 지방관의 존재가 부각되었으며, 이 시에서 교방의 기생들이 특히 강조된 점은 특히 지방관과 관련하여 이 시에 낭만성이라는 색채를 덧입히려는 시도라고 생각한다.

## 참고문헌

### 1. 자료

『청북근조(靑北近調)』(연세대 소장본)

### 2. 단행본

고성훈 외, 『민란의 시대』, 가람기획, 2000.

고승희, 『조선후기 함경도 상업 연구』, 국학자료원, 2003.

王實甫, 『西廂記』, 대만문원서국, 1975.

王實甫, 양희석 역, 『서상기』, 지식을만드는지식, 2016.

연세대학교 국학연구원 편, 『연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고서해제』 VI, 평민사, 2006.

이능화, 『조선해어화사』, 신한서림, 1968.

李哲寧 편, 『延安李氏詹事公派大譜』, 龍仁郡: 延安李氏 詹事公派大譜刊行委員會, 1985.

### 3. 논문

강석화, 『영·정조대의 함경도 지역개발과 위상강화』, 『규장각』 제18집, 서울대학교 규장각, 1995, 27~67면.

고승희, 『19세기 함경도 상업도회의 성장』, 『조선시대사학회』 제21집, 조선시대사학회, 2002, 137~170면.

김태영, 『해좌 정범조의 함경도 유배기 한시 일고찰』, 『동악어문학』 제54집, 동악어문학회, 2010, 323~352면.

심경호, 『관서·관북 지역의 인문지리학적 의의와 문학』, 『한국고전연구』 제24집, 한국고전연구학회, 2011, 5~30면.

이은주, 『신광수 <관서악부>의 대중성과 계승양상』,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2010.

이재봉, 『지역문학사 서술의 가능성과 방향』, 『국어국문학』 제144집, 2007, 41~64면.

최미정, 『<북새곡>에 나타난 북관의 풍경과 관직자의 감성』, 『한국학논집』 제53집,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13, 241~304면.

## A Study on "Cheonghae Byeolgok"

Yi, Eun-Ju

This paper describes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eonghae Byeolgok(Song of the Blue Sea)", which is included in the collection of the Yonsei Univ. It was discussed with the focus on composition and contents. "Cheonghae Byeolgok" is a 117 numbers of poems written by Lee Byung-wook, who went to Bukcheong in Hamgyung-do in 1890. This work is influenced by Shin Kwang-soo's "Song of Kwanso" mentioned in the preface, and in particular inherits the three elements of the area, the provincial governor, and the gisaeng.

I first summarized the facts of Lee Byung-wook's writing on this work and the time of his creation of 1891, and left a question. In terms of composition, I understand this in two ways, content classification and part independent.

Since "Cheonghae Byeolgok" is basically shaped by the ideal of Bukcheong, it has the perception that the problems faced by Bukcheong people at the time have also been solved. When Lee Byung-wook went to the Bukcheong, he faced the realistic problems of Bukcheong revolt and flood that occurred between 1888 and 1890. It is also important to remove the stigma of a culturally depraved area. In the "Cheonghae Byeolgok", he set up the provincial governor as a savior to solve this problem. He added an image of romance and abundance to the poems by giving weight to the gisaeng.

keywords: "Cheonghae Byeolgok", Lee Byung-wook, Bukcheong in Hamgyung-do, Local jukjisa(Provincial song), 19th century, classical scholar' ethos, merchant town.

접수일자: 2017. 9. 30.

심사기간: 2017. 10. 1.~2017. 11. 10.

게재결정: 2017. 11. 10.

